

“멋진 인생이란 자신이 조각하기 나름이죠”

신라명과 생산본부장 박점두

이런 글귀가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진리인양 생각했던 이 문구도 이 사람 앞에서는 여지없이 허위로 무릎을 꿇고 만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안경테, 흰 모자로 가려진 이마부분, 지긋이 내려앉은 눈매, 그러면서도 자상한 미소로 부드러운 인상을 풍긴다. 신라명과 생산본부 박점두(56) 전무이사의 첫인상이다. 마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한 박점두 전무의 인상은 고통이나 아픔 따위는 배제한 듯 보인다. 그러나 신라명과 생산본부의 전무이사가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 파노라마는 좌절과 재도전, 한마디로 ‘칠전 팔기’의 드라마였다.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다

박전무는 15세 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 수 없다고 판단,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가려 했던 용감무쌍한 소년이었다. 그러나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서울살이는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다. 이일 저일 실패를 보다가 결국엔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다시 상경, 서울살이에 재도전한다. 주변의 소개로 16세 때 ‘하월당’이라는 제과점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에게 맡겨진 작업은 제품배달과 가게를 보는 것. 공장에는 얼씬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자꾸만 공장 안을 기웃거리게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에 대한 배

움의 욕구가 강하게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배달과 가게 청소뿐, 선배들은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기를 2~3년. 그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어렵사리 중앙대 자리에 있는 작은 제과점으로 옮겨 꿈을 키워본다. 그때가 17살. 다행히 이곳에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나 그것도 잠시, 제과점의 작은 문제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3년 후에 당시 유명했던 '무궁화 제과점'으로 옮겨 본격적인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참 많이 옮겨 다녔죠. 그 당시는 요즘처럼 전문분야의 기술을 전수해주시기보다는 허드렛일부터 시켰죠. 밀바다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제일 나중에 가르쳐주었습니다. 배움은 그래야죠. 지름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려당에 입사하게 되는 행운을 맞았는데, 약 2년동안 일하게 된다. 이때 예전에 몸담고 있던 무궁화 제과점에서 다시 오라는 제의에 그는 무궁화제과점의 분점과 본점을 오가며 5년동안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처럼 옮겨다니면서도 그는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인생의 크나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저희 점포가 길가에 있었는데, 옆 도로를 지나던 커다란 버스가 그대로 우리 가게 안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고였죠. 그때 식구들과 저 모두 많이 다쳤지요. 참 끔찍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낮에 일하던 무궁화 제과점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망하며 나날을

보내는 것 뿐이었다.

좌절이 쌓여올린 오늘의 성공

이러던 차에 신문에서 우연히 만났던 '프레지던트 호텔 제과부 사원

모집' 공고. 그의 가슴은 자신감에 부풀어 곧바로 입사지원서를 냈고 드디어 1972년 12월 20일 첫출근을 하게 된다. 그가 중심이 되어 프레지던트 호텔 제과부는 이듬해 2월 오픈하게 됐고 당시 전국관광총사회 콘테스트에서 케이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매스컴을 타게 되고 그의 기술력도 하루가 다르게 향상, 그는 신라호텔로 옮겨 또다른 인생을 설계하게 된다.

“신라호텔 제과부를 창설하고 이어서 1983년에 신라명과 제1공장 오픈 멤버가 되었죠. 이후 영남 창녕 제2공장 창설 책임자로 창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간동안 무엇보다 제 가족들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저온숙성 냉동빵을 100% 생산하는 영남 창녕공장에서는 있는 기간동안 그는 부인의 내조가 정말 큰 힘이었다고 말한다. 이후 지난해 8월에 본사인 안양의 생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즘은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제품과 사람 모두가 전문성을 지녀야 하죠. 제품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향상이 무



▲ 직원과 함께 신제품을 면밀히 검토하는 박점두 전무

엇보다 중요한데, 그건 억지로 하라고 해서 안됩니다. 선배가 술선수범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저는 부하직원들에게 시간관리를 잘하라고 합니다. 제품은 시간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준이 좌우되거든요.”

공예작품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지니고 있는 그는 인생이라는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56년의 세월은 아직도 미완의 조각품. 그가 완성된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쯤일까. **연재**



▲ 신입사원들과의 의견교류도 그에게는 중요한 활동. 한층 더 활기있는 그를 엿볼 수 있다.

◀ '실패도 많이 겪으면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